

경제



■ 실물펀드 투자 이것만은 알고 하자

건설 현장에도 '女風'

건설기술사 10명중 1명꼴 여성

급급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건설기술사 분야에 여성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건설교통부가 근로자의 날을 맞아 2001년부터 5년간의 건설기술사 성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4년 이후 건설기술사 10명 가운데 1명꼴로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전체 건설기술사 40만여 명 가운데 여성 건설기술사는 3만2천여명으로 8.0%에 그쳤으나, 2003년에는 9.5%, 2004년 10%를 기록했다.

특히 2005년 말 현재로는 전체 52만여명의 건설기술사중 10.4%인 5만4천여명이 현역으로 일하고 있고 최고의 기술자격 중목으로 불리는 기술사 취득 여성도 120여명까지 늘었다. 건설업계 여성 CEO는 5만4천여 업체 가운데 7천300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여성 건설기술사들은 도목·건축·도시계획·조경·환경 등 건설 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참여가 다소 어려웠던 광업·건설기계 분야에도 향후 활발한 진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4년 한국여성기술인협회를 인가하는 등 여성들의 건설 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론스타 1,400억 추정금 불복

국제심판원, 심사 착수

국제심판원이 론스타가 제기한 1천400억원의 추정금 불복심판청구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 국제심판원에 따르면 국제청은 최근 론스타가 제기한 추정금 불복심판청구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치고 의견서를 첨부해 심판원으로 넘겼다.

심판원은 론스타의 심판청구를 제3심판부 주영성 상임심판관에 배당했다.

주 심판관은 "배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관련 서류를 모두 검토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언제쯤 처리가 될지는 내용에 따라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제청의 세무조사 결과 1천400억 원을 추정당한 론스타나 관련 자회사가 심판원에 제기한 불복심판청구건수는 모두 15건.

이 중 12건은 구조조정 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된 론스타 관련 법인들이 제기한 불복심판청구로 이전가격 관련 이자율과 수익금을 손급에 산입할 지 여부 등 법령해석상 차이들이 주요쟁점이며 추정금 중 400억원 가량이 대상이라고 심판원은 설명했다.

나머지 3건은 스타타워 빌딩 매각 관련 추정금 1천억원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다.

심판원은 서류검토를 마치면 청구인과 국제청으로부터 서로의 논리를 반박하는 답변서와 증빙자료를 제출케 한 뒤 상임심판관 2명과 외부 심판관 2명으로 구성된 심판판회의에 올려 추정금을 취소할 지 아니면 심판청구를 기각할 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월세 세입자 중개수수료

내달부터 10~20% 인하

오는 6월부터 소액월세 세입자의 중개수수료가 10~20% 가량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서민 가계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전세전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소액 월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현행보다 낮춰 적용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세환산가격의 산식을 월세에 100을 곱한 뒤 보증금을 더하는 기본틀은 유지하되 5천만원 미만 월세는 환산가격을 70%로 할인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2년 계약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현행 15만원에서 12만원으로,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20만원의 중개료는 20만원에서 17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개정안은 여론 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의를 거친 뒤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된다.

/연합뉴스

금호고속 이원태사장

근로자의 날 은담산업훈장

금호고속 이원태 사장이 지난달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2006년 근로자의 날' 기념식에서 영예의 은담산업훈장을 받았다.

이 사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33년간 재직했으며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생산성 향상, 사회공헌 등에 이바지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게 됐다

이 사장은 지난 2002년부터 국내 최대 버스운송업체인 금호고속의 경영을 맡은 후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펼쳐 대중교통업계를 선도했으며, 창업 이래 60년간의 무분규 사업장을 지속하고 회사와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노사협력문화 이룩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수익률 변동심해 리스크 크다

金·油价·원자재 폭등 등 투기자본 유입 경제 전체 자산의 10%정도 분산 투자 접근해야

한국펀드평가 이동수 펀드 애널리스트는 "국제 원자재의 경우 가격변동 사이클이 10년 이상으로 긴데다 단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최근 아무리 수익률이 좋다고 해도 분산투자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전체 투자자산의 10%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제유가의 경우 8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말까지 약세장을 연출했으며 한때 배럴당 10달러선까지 하락했으나 최근에는 70달러 선까지 오르는 등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 타이밍을 잘못 잡을 경

우 손실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어야 하며 적당식으로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 애널리스트는 지적했다.

대한투자증권 상품전략 담당자도 "국제 정치·경제 이슈 등에 따라 변동성이 심한 만큼 이를 중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안정적인 채권과 실물투자를 결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강 부부장은 또 실물이나 실물지수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이와 관련된 회사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것

도 변동성을 중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투자대상에 대한 안목도 중요= 원자재 변동성이 심한 만큼 투자 대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망과 안목을 미리 가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펀드평가회사인 제로인의 최상길 상무는 "관련 상품의 현황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이 세계 상품시장의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펀드의 판매회사가 관련 서비스를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지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발급되는 운용보고서에 일부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내용이 제한적인 만큼 별도의 서비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유가나 각종 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거나 유가지수 등에

연동되는 펀드들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최근 급등세를 타고 있는 이들 상품의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설 경우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환율도 고려해야= 실물펀드의 대부분이 달러화 기준으로 이뤄지는 만큼 환율도 중요 고려사항이다.

실제로 에너지 고갈에 대비해 풍력, 조력, 바이오에너지 등에 투자하는 '메릴린치 뉴에너지펀드'는 올해 1·4분기 28.94%의 수익률을 기록,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이 펀드의 원화 기준 수익률은 최근 원화강세로 인해 23.94%로 달러화 기준에 비해 무려 5%포인트가 낮아진다. 이에 따라 관련 상품의 환헤지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계열사 독립경영으로 위기 극복

■ 현대차 MK 공백 어떻게

정몽구 회장의 구속으로 총수 공백 상태인 현대차그룹이 비상경영체제를 어떻게 꾸려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별도의 대책기구를 구성하거나 권한 대행을 정하지 않고 '각사(各社) 경영체제'로 운영, 계열사별 최고경영자들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위기 상황을 타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대차그룹 안팎에서는 이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 등이 동반되는 주요 사안의 경우 정 회장이 '육중 결재'를 하거나 정 의결 기아차 사장이 막후에서 정 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

◇'각사 독립경영체제' 시동 = 29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그룹은 정 회장 구속 다음날인 이날 현대·기아차 부사장급 이상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경영체

주요 사안 정회장 '육중결재'

정의선 사장 배후 역할할 듯

계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그룹은 또 이날 대책회의에 이어 곧바로 현대·기아차의 상무급 이상이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도 열 예정이었으나 취소했다.

이날 부사장급 이상 대책회의에서는 정 회장의 공백에 따른 경영체제 운영 방안 등에 대해 협의, 향후 그룹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해 협의했다.

또 총수 권한대행 체제의 경우 그동안 정 회장이 계열사의 주요 현안을 직접 챙기는 경영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정 회장을 대신해 권한을 행사할 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분석된다.

◇정 회장 '배후' 역할할 듯, 경영차질은 불가피 =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

은 기존처럼 계열사별로 대표 책임하에 경영을 하되 대규모 투자 집행이나 신규 사업 등 각사 대표의 전결 권한을 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육중 결재로 최종 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 회장의 경우 그동안 국내외에서 각종 현안과 전망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접하고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주요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해왔지만 '육중'에서는 정보 차단 등으로 판단이 흐려지고 경영 마인드도 위축될 수밖에 없어 당분간 대규모 투자나 신규사업은 울스톱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이에 따라 그룹측은 정 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는 하지 않는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사실상 '2인자'인 정 사장이 전면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막후에서 정 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로 경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앞두고 카드 판매업체인 홀마크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등촌동 홀몰러스강서점에 대형카드를 선보여 고객들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글귀를 적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증권 해외투자 급증

부동산 취득 5,000달러 돌파
주식·채권 55억달러 순유출

올들어 해외 부동산 구입 금액이 5천만달러를 넘어서고 해외 주식·채권 투자도 사상 최고에 달하는 등 국내 자금의 해외투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해외 투자 상품이 늘어나는데도 외환 거래 규제도 완화되고 있어 이런 추세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부동산 취득 5천만달러 돌파= 지난달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들

어 지난 26일까지 거주목적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으로 모두 5천 302만달러(164건)의 자금의 송금됐다. 월별로는 1월 487만달러(13건), 2월 1천224만달러(36건), 3월 2천71만달러(64건), 4월 1~26일 1천620만달러(51건) 등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한해 거주용 해외부동산 취득 금액이 873만달러(26건)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올들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놀라울 정도다.

◇해외증권투자 사상 최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포트폴리오투자수지(재무투자수지) 중 해외 주식과 채권(중장기채·단기금융상품·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내국인투자는 55억4천만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이 금액은 분기 순유출 규모로는 사상 최대치이며 지난해 전체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순유출 금액(100억2천만달러)의 절반을 웃돈다.

지난 2000년 1천만달러의 순유출을 나타냈던 내국인의 해외증권 투자는 2001년 50억6천만달러의 순유출로 돌아선 뒤 2002년 37억4천만달러, 2003년 35억9천만달러, 2004년 73억9천만달러, 2005년 100억1천만달러 등으로 순유출 규모가 확대 추세를 보였다.

/연합뉴스

현대家 이번엔 '시동생의 亂'?

현대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이 현대상선 지분 인수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 상황이 2년전 KCC와 경영권 분쟁을 겪었을 때와 여러모로 닮은 꼴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27일 현대상선의 주식 26.68%를 매입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분 인수 배경에 대해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상선을 외국인 투자자의 적대적 M&A로부터 보호하기 위

해서 지분을 매입했다"고 밝히며 현대상선의 '백기사'를 자칭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그룹은 "현대중공업그룹이 '백기사'라고 하기에는 수상한 점이 너무 많아 오히려 흑기사에 가깝다"며 지분 매입 배경에 대해 강한 의심을 품고 있다.

정 명예회장과 현 회장이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경합을 벌인 '시속의 난'은 2003년 8월 정몽헌 회장이 자살한 직후 시작했다.

현대그룹측은 이런 이유로 이번에

현대重 '상선'주식 기습 매입
KCC와 경영권 분쟁 다툼끝

현대중공업이 지분을 인수한 것도 KCC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강하게 품고 있다.

한편 사태가 발생한 시점도 현대그룹이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매수로 위협을 받았고 현대가 전체 분위기가 극도로 어수선했던 와중이라는 점에서 닮았다. 이번에도 현대가의 장자인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비자금 조공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현대가 전체 분위기가 어수선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Table with 6 columns: Job Name, Position, Requirements, Salary, Start Date, Contact Info. Includes jobs like '금호생명', '인도드림', '필코스텍', etc.



062.JOBKOREA.CO.KR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